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바쿠닌의혁명적사상

아나키스트사상과운동의창시자중한명, 바쿠닌의사상에대
한개요

이안맥케이

이안맥케이
바쿠닌의혁명적사상
아나키스트사상과운동의창시자중한명, 바쿠닌의사상에대한개요

kr.theanarchistlibrary.org

차례

I		3
II		5
III		8

분명하게도 바쿠닌은 19 세기의 중요한 아나키스트 사상가이자 활동가다.

바쿠닌은 그의 친구 피에르-조지프 프루동의 연방주의적이고 자유의지주의적 사회주의 사상과 유럽 노동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 영향 아래에서 바쿠닌은 아나키즘을 현대적 형태로 다듬었다. 그의 혁명적이고 계급 투쟁에 기초한 아나키즘은 1 인턴셔널당시 아나키즘의 주된 형태가 되었다. 그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국가 사회주의와 투쟁했고, 아나키즘적 코뮌주의와 아나키즘적 조합주의의 간격을 놓았다. 마르크시즘에 대한 그의 예견은 사실로 확정되었고, 그의 자본주의, 국가, 종교에 대한 비판은 등장 당시와 마찬가지로 현대에도 유효하다. 러시아와 스페인 혁명은 그의 혁명에 대한 사상의 힘을 입증했다.

하지만 바쿠닌의 사상은 아나키스트 운동 바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바쿠닌을 혐오하고, 자유주의자들은 바쿠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보인다. 그의 사상에 대한 이러한 왜곡은 많은 급진주의자들이 바쿠닌을 독해하고 그의 이론의 힘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왜 죽은 러시아 사람 한 명이 1860 년대와 1870 년대에 하려 했던 말에 관심을 가지는가?

I

바쿠닌의 혁명적 사상은 유물론에 근거한다. 그에게 “사실은 관념에 우선”하며, 관념은 “존재의 물질 조건에 뿌리 내린 꽃일 뿐”이었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그는 개인의 자유와 그를 위한 평등한 개인 간의 협동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사회의 상을 건설했다. 그는 다른 관념론자들의 추상적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거부한다. 그는 참된 자유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평등 위에만 세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떠한 인간도, 그 주변 인간들의 해방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스스로 해방될 수 없다. 나의 자유는 모두의 자유다. 나의 사상적, 물질적 자유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나와 동등하다는 이들의 자유와 권리 위에 공고할 때에만 성립한다.”

바쿠닌에게 “인간은 독자적으로 그가 자유롭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에 자유는 독자성이 아니라 상호 교류의 산물이다. 자유는 개별성이 아니라 연결의 산물이다.”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추상적 개인을 숭상할 때 그것은 “자유 의지를 보여주며, 모든 자유의 잔해 위에 권위가 세워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모든 발전은 “그 시작점을 부인하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실질적 유물론의 행동에 있어 관념론자들을 발견하고, 유물론자들이 가장 존귀한 관념적 열망과 사상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자유지상주의” 우파가 개인의 자유를 옹호할 때, 이들이 최대 이익을 위한 “경영권”을 옹호하면서도 도과세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을 보라. 추상적 개인주의는 자유위에 권위가 서는 것을 정당화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아나키즘은 “자유의를 부정함으로써 자유의 확립으로 귀결한다.”

이는 아나키즘이 “권위의 원칙을 거부한다”는 것을 뜻한다. 엥겔스는 바쿠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개념은 단순하다. 바쿠닌에게 “권위의 원칙”은 “대중이 언제나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고, 현명하고 정의로운 자비로운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며, 어떻게든 위로부터 명령받아야 한다는 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정치적인 관념”이다. 이 원칙 대신에 바쿠닌은 이후 “자주 경영”이라 불리는 것을 옹호한다. 이러한 조직에서 “체제의 질서와 진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집단적 작업과 행동”을 위한 “자발적이고 사려깊은 질서”가 자리잡을 것이다. 바쿠닌은 “이러한 체계에서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권력은 공동체 속으로 해소될 것이고, 모든 이의 자유의 참된 표현이, 모든 이의 의지에 대한 신실하고 성실한 실현이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참된 질서이자, 자유의 조직에 필요한 질서”라고 강조한다.

바쿠닌은 자유가 연결의 산물이 아니라 독자성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집단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식이, 그 집단이 권위주의적인지 자유의 지주의적인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바쿠닌에게 “권위의 원칙”은 조직이나 합의가 아닌 체제를 의미한다. 바쿠닌은 “이것이 내가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묻고는, 명확하게 “아니다. 나는 이러한 발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바쿠닌은 권위자 (전문가) 가 되는 것과 권위를 누리는 것의 차이를 인지한다. 바쿠닌은 아나키스트들이 “자연스러운 권위를 인정하고, 사실이 우리 위에 있음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권리는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자연스럽고 이성적이며, 우리가 존중하는 위대하고 전능한 권위는 평등과 연대와 상호 존중의 원칙 위에 세워진 집체적이고 공공적인 정신”이라고 말한다.

바쿠닌은 자유를 사랑하고 체제를 적대했기에 국가, 자본주의, 종교를 거부한다. 그의 저작 『신과 국가』에서 바쿠닌은 무정부주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노예에 불과하다. 만약 인간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자유로워야 한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신이 라는 관념은 인간의 이성 과정의 퇴장을 함축한다. 신은 이론적이며 동시에 실천적으로 인간 자유의 가장 끔찍한 격하이자 인간의 예속이다.” 그는 명시적으로,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신을 철폐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바쿠닌은 신의 권위를 반대하는 것과 동시에 더 구체적인 것 역시 반대한다. 그는 국가가 계급적 지배의 기구라고 주장한다. 국가는 “지배 계급이 대중에 대해 행사하는 조직된 권위, 지배, 권력”이며, “실물적 불평등을 상정하는 힘, 권위, 지배를 나타낸다.” 권력의 불평등은 계급 사회의 유지에 필수적이며, 그렇기에 국가는 체제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구조로 진화한다. “모든 국가 권력, 모든 통치는 본성적으로 그 인민 외부에, 그리고 그 위에 위

쿠닌의 고전 『신과 국가』는 여전히 추천할 만하며, 그의 유일한 저서 『국가주의와 아나키』 역시 읽을 가치가 있다. 아나키스트 연대기 『신도 주인도 없다』의 1 권은 바쿠닌의 대표적 저작들을 포함하고 있다.

치기구가, 대중생활의자유롭고자발적인조직이되어야한다. 경제적으로, 임노예제는”토지, 생산수단, 상속재산이노동자스스로에의해, 산업·농업노동자들이자유롭게조직한연방에의해소유되고운영되는사회에서만번창하고최대잠재력을달성할“협동적생산으로대체될것이다.

이를통해“모든인류는인간성을발전시킬수있는물질적이고도덕적인수단을가지게될것이다.”바쿠닌의아나키즘은사회를변혁하고모든권위주의적사회관계를철폐하는것이다. 국가와자본주의의정신과파괴본성보다삶을앞세우는것이다. 아나키스트들은“정신적·도덕적·물질적측면모두에서삶과그즐거움에대한긍정적권리를옹호한다. 아나키스트들은삶을사랑하고, 그것을최대한즐기고자한다.”

III

자본주의를대체할이념으로써바쿠닌의이념은여전히유효하다. 그리고사회주의달성을위해그가제시한방법론역시유효하다. 파리고뮌은, 러시아혁명에서의노동자소비에트는, 스페인내전에서집산주의는그의이념을상당부분확인해준사례였다. 마르크스즘에대한바쿠닌의비판역시옳다고입증되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개혁주의자가되었고, 볼셰비키는권위주의자가되었다. 이는바쿠닌의이념이오늘날에도고려할가치가있음을보여준다. 하지만바쿠닌의이념을생각없이반복하는것이아니라, 그것에근거하여시대에맞는이념을건설하고발전시켜야하겠다.

이문건에서논의하지못한바쿠닌의여러측면들(긍정적, 부정적측면 모두) 이있다. 유대인과게르만인들에대한그의편견이나비밀결사에대한열정은부정적인측면의예시일것이다. 하지만이것들을모두고려한다면, 바쿠닌은중요한아나키스트사상가로고려되어야한다. 이는아나키스트들이“바쿠닌주의자”가아니기에중요한아나키스트사상가의개인적결함과실수를거부할수있기때문이다. 아나키스트들은바쿠닌의이념의상당한부분이오류임에동의한다. 하지만이것이바쿠닌이아나키스트들의이론과실천에기여한것의가치를저하시키지는못한다.

아나키스트연방의소책자 『바쿠닌입문』 은바쿠닌의이념에대한훌륭하고, 싸며, 짧은소개를제시한다. 바쿠닌의삶과이념에대해더많은내용을찾는이들은브라이언모리스의 『바쿠닌: 자유의철학』 을읽는것이 좋을것이다. 바쿠닌의사상에대한최고의(그리고가장비싼) 문서는리처드 B. 솔트만의 『미하일바쿠닌의사회적, 정치적사상』 이될것이다.

하지만, 바쿠닌의저서를먼저읽는것이최선일것이다. 프리덤프레스의 『마르크스주의, 자유와국가』 는훌륭하고, 짧은모음집이다. 『아나키즘에대한바쿠닌의입장』 은그의저작을포괄적으로모아두고있다. 바

쿠닌은성차별에도반대했으며, 여성의자유와평등을지지했다. 그의반제국주의역시유명하다. “퇴행적”인민에대한제국주의를지지한마르크스나엥겔스와는달리, 바쿠닌에게“모든인민은, 스스로가될권리가있다.”

II

바쿠닌에게현존체계에대한저항은소극적인것이아니다. 그의눈에자본주의로부터탈출할수있는방법은세가지뿐이다. 술집에가거나, 교회에가거나, 사회혁명을일으키거나. 술집에가면“몸이취하고”, 교회에가면“정신이취한다.”사회혁명만이유일하게참된희망이며이것이그가제 1 차인터내셔널에참여한이유이자오늘의조건을개선하고자유로운사회를만드는수단으로써집단적, 조직적계급투쟁을이야기한이유이기도하다. 그는“도시프롤레타리아트를혁명적사회주의의이름으로조직하고, 이를통하여그들과농민을하나의예비적조직으로만들”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는아나키즘적조합주의를예견했다. 그는아나키스트들이“국가의군경을부술수있을만한인민의세력을건설할수있는”노동운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것을강조했다. “프롤레타리아트를조직하는것은필연적이다.”

그의사상에서파업은중요한역할을가진다. 바쿠닌에게파업은“프롤레타리아와부르주아지의사회적전쟁의시작점”이며, 대중들에게“부르주아지와스스로의이해관계가서로본질적으로대립한다는감정을일깨운다.”또한파업은“연대라는사실”을확립하기도한다. 파업은“부르주아지와국가의권력을무너트리고새로운세계의토양을놓을수있는노동자의군대를건설하고, 조직하고, 구성”한다. 바쿠닌은총파업을지지했다.

총파업은“프롤레타리아트를 지배하고 있는 해방적 사상과 함께 한다면, 사회가 그 구태를 벗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대변혁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바쿠닌은 1 차인터내셔널에서 마르크스주의와 다투었다. 바쿠닌은 여러 이유로 마르크스를 반대했다. 그는 급진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했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대표단을 입법의회에 보낼 때, 노동자 대표단은 부르주아적 환경에 이식되어 노동자를 배신하고 국가 기구가, 부르주아가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사회민주주의가 개혁주의, 기회주의로 전락한 것을 보라. 이것이 바로 바쿠닌의 걱정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바쿠닌은 정치적 행동 대신에 “도시와 촌락 노동 대중의 사회적이고 (따라서 반 정치적인) 조직과 힘”을 주장했다. 이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집단적으로 인터내셔널에 들어와 공장 위원회, 수공업 위원회, 농업 위원회 등을 조직하고, 지역적 연방을 통해 단결”하여 “스스로의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럼에도 아나키즘은 “일반적인 정치 체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부르주아 계급과의 투쟁이 당위인 이상, 정치에의 참여 역시 당위가 된다. 아나키즘은 오직 부르주아의 지배를 확립하는 부르주아 정치만을 거부한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대해 바쿠닌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우선, 이 단어를 직설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는 소수의 의한 독재를 의미한다. 마르크스 스스로도 인정했듯이, 영국을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에서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노동 대중의 다수를 차지했다. 이 상황에서 마르크스의 “혁명”에 대한 상은 다수의 노동 인민을 배제한다. 바쿠닌은 이것이 “도시 산업 노동자들이 수백만의 농촌 프롤레타리아트를 배제하고, 결과적으로 소위”인민 공화국 “의 신민으로 만드는데 것이 새로운 귀족 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바쿠닌은 새로운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전체 프롤레타리아트가 될 수 있을지의 심했다. 바쿠닌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말하는 바 “인민의 정부는 인민에 의해 선출된 소수 인민에 의한 정부를 의미한다. 소위 인민 대표단은, 보편 선거에 기초하여 선출된 국가의 지도자들은 소수의 의한 지배가 보장된 전제정이라는 것을 숨기는 기만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레닌의 체제가 이를 입증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롤레타리아트 (에 대한) 독재가 되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바쿠닌이 “노동자 국가”에 반대했다는 것은 혁명을 조직하거나 방어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바쿠닌은 국가를 분쇄하고 자본주의를 철폐할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바쿠닌에게 아나키스트적인 국가의 철폐는 마르크스가 바쿠닌에 대해 말한 바 노동 대중이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아니었다. 바쿠닌은 “혁명을 방어하기 위해, 인민 대중은 자발적으로 공동체적 자경단을 구성할 것”이라고 명확히 바라보았다. 이것은 “공동체의 방어를 위한 연방”이 될 것이었다.

각 코뮌들은 “반동에 맞서 승리하기에 충분한 혁명적 세력을 조직할 것”이고, “자기 방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의 확산과 조직이라는 사실이 혁명의 승리를 가져올 것”이었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바쿠닌의 반대는 권력의 문제에 근거하고 있었다. 노동 계급의 해방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는 파괴되어야 했다. 만약 “전체 프롤레타리아트가 정부를 구성한다면, 정부도, 국가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국가가 존속한다면, 여전히 지배되고 예속된 이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아나키스트들은 “제한의 회견, 임시 정부 건, 소위 혁명적 독재 건, 심지어 이행 기적 과정의 일부로써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 아나키스트들은 혁명이 대중의 손에 있을 때에만 신실하고, 진실하며, 실질적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만약 혁명이 소수의 지도자의 손에 떨어지면, 혁명은 그 순간 반동이 된다고 믿는다.”

아나키스트적 혁명은 “혁명적” 중앙 정부가 대중을 위로부터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코뮌과 노동자 평의회 연방에 기초해야 한다. 바쿠닌은 집단적 계급 투쟁의 과정은 그 자체로 자유로운 사회의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모든 노동 인민의 단체들의 연방적 동맹이 코뮌을 구성할 것”이며, “미래의 사회 조직은 자유 연합이나 노동자 연방에 의해 상향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 스스로의 조합으로부터 시작하여, 코뮌이 되고, 지역이 되고, 최종적으로 전세계적 연방을 구성할 것”이었다. 상향식 위원회는 “(골간 조직의) 총의로부터 확립되어, 언젠가 그 위임이 철회될 수 있는 대표단”으로 구성될 것이다.

혁명이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구조는 투쟁 속에서 만들어져 억압과 착취에 대항하는 노동 대중의 자체적 전투 조직에 기초해야 한다. “모든 곳에서 혁명은 인민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고, 그 최종적 통제권은 노동에 기초한 인민의 자유 연방에게 주어져야 한다. 이 자유 연방은 혁명적 대의제에 의한 상향식 조직이어야 한다.” 혁명적 조직은 대중 조직 내에서 “각 개구성원의 자연스럽고, 개인적인 영향력을 통해서만 인민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뿐, 어떠한 권력도 주어서는 안 된다.”

물론 바쿠닌의 혁명에 대한 관점은 국가를 향하고 있지만 한 것은 아니었다. 바쿠닌의 혁명은 자본주의 역시 겨냥했다. 자유로운 사회는 “토지와 생산 수단, 여타의 자본이 전체 사회의 집단적 자산이 되고, 노동자에 의해서만, 농업·산업 조직에 의해서만 활용되는” 것에 기초해야 한다. 그렇기에 혁명의 첫 번째 작업은 노동자들이 “모든 노동의 수단과 자본과 건물을 쓸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정치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이기 싫다면, 어떠한 혁명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회 혁명은 국가와 자본주의를 동시에 철폐하는 것이어야 한다.

새롭고 또 자유로운 사회는 “아래로부터, 연합으로부터, 코뮌으로서 시작되는 진정한 인민의 조직이어야 한다. 그렇기에 가장 작은 분자로부터 조직을 건설해야 하며, 이로써 위로 쌓아 올려야 한다. 연방은 사회주의의 정